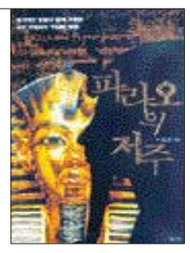
북스

Books

황금유물로 밝히는 이집트 문명사

파라오의 저주

이종호 지음



1922년 수 천년간 닫혀 있었던 고대 이집트의 무덤이 열렸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파라오에 올랐다 19세에 사망한 '소년왕 투탕카문'의 무덤이었다. 투탕카문의 무덤에서 쏟아진 것은 황금으로 치장된 관 속에 들어 있는 미라와 황금 마스크 등 3천 5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었다.

무덤 발굴 5개월 후,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카나본 경이 사망했다. 무덤에 들어갔던 화이트 박사는 목을 매 자살했고 1972년 전시회를 위해 유물을 영국으로 실어나르던 가멜 메레즈도 돌연사했다. 투탕카문 무덤과 관련된 일로 사망한 사람이 21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사람들은 이를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렀다.

투탕카문의 관에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사를 뒤흔든 발굴' 등을 펴낸 과학자이자 고대 문명 탐사가인 이종호씨가 쓴 '파라오의 저주'는 투탕카문의 저주가 사실인지 아닌지 추적하며 화려했던 이집트 고대 문명과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특히 투탕카문의 묘를 비롯한 파라오의 무덤과 미라, 피라미드의 비밀을 캐려는 현대 과학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해 흥미를 돋운다.

가장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은 역시 투탕카문의 무덤을 둘러싼 이야기들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무덤을 찾아내지 못해 철수하던 순간, 현장 청소를 하던 청소부가 계단같은 흔적을 발견하면서 재개된 발굴의 시작부터가 극적이다.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현대의 과학자들은 파라오의 저주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저주가 널리 퍼져나가게 된 촉매 역할을 했던 카나본 경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 정설로 굳어졌던 투탕카문의 '살해설'에도 CT 단층 촬영을 통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외상을 통한 복합 골절 후 세균 감염이 사망 원인임을 밝혀냈다.

책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미라와 피라미드도 소개하고 있다.

'하늘에 이르는 성스러운 계단'으로 불리는 피라미드는 파라오를 상징하는 기념비이자, 복합장례건축물이다. 현재 위치가 확인된 피라미드는 80여기. 그중 2.5톤짜리 돌덩어리 230만개로 쌓아올렸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한 현존 건축물인 쿠푸의 대피라미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광섬유 카메라를 장착한 탐사 로봇을 통해 피라미드 축조의 비밀과 또 다른 숨겨진 방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기원전 3천년 경부터 대략 1억 5천만개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제작 방식도 소개하고 있다. 미라를 만들 때는 옆구리를 통해 내장을 모두 꺼냈지만 이집트인들이 영혼이 사는 곳, 인간의 본성이 깃든 곳이라고 생각했던 심장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책에서는 람세스 2세, 클레오파트라 7세 등 파라오의 삶과 언어의 천재 샹폴리옹이 로제타석 탁본을 보고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과정, 병을 낳게 하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킨다는 '피라미드 파워' 등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파라오의 저주'가 카나본 경이 영국의 '더 타임스'에 발굴 비용을 일부 받는 대가로 취재 독점권을 주는 바람에 각국의 언론사와 카타본 사이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만들어진 스캔들'이라는 점도 소개하고 있다.

투탕카문의 묘에서 발굴된 유물의 생생한 컬러 도판들과 사진도 읽는 재미를 더하지만 잦은 오·탈자가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점은 아쉽다.

〈북카라반·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집트 유물의 보고 투탕카문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관.

영웅의 삶·업적 조명

'나폴레옹 평전'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위인으로 손꼽히는 나폴레옹. 하지만 나폴레옹은 조국을 구한 애국자, 세계 정복의 화신, 근대화의 길을 연 개혁가 등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역사가인 저자 조르주 보르도노브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그린 '나폴레옹 평전'을 펴냈다.

저자는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나 의도적인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나폴레옹을 추종하고 변호하는 담론은 물론, 신랄하게 비난하는 담론까지 두루 살펴 다양한 각도에서 나폴레옹의 삶과 업적을 조명했다.

〈열대림·2만9천원〉

/이은미기자 emlee@

바쇼의 하이쿠 기행 1·2·3

마츠오 바쇼 지음·김정례 옮김

일본인이 사랑하는 시인 바쇼 문학의 백미

"오늘 밤 좋은 숙소를 빌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짚신이 발에 맞았으면…."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쿠(俳句) 시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그림 왼쪽)가 불혹의 나이에 10년을 길 위에서 보내며 매일 소망했던 것들이다.

그는 여행지의 길목에서 잠시 시를 지으며 발을 풀곤 했고 51살에 여행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김정례 교수의 '바쇼의 하이쿠 기행 1·2·3'은 바쇼가 말년에 여행지에서 남긴 기행문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5·7·5조 17음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 하이쿠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바쇼의 3대 기행문으로 일컬어지는 '오쿠로 가는 작은 길' '산도화 흩날리는 삿갓은 누구인가' '보이는 것 모두가 꽃이요'를 세 권의 책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오쿠로 가는 작은 길'을 번역, 출간했었던 김 교수가 10년 만에 바쇼의 3대 기행문에 꼼꼼한 해설을 붙여 다시 펴낸 것이다.

1권 '오쿠로 가는 작은 길'은 바쇼가 1689년 봄에 길을 떠나 156일 동안 2천400㎞를 여행한 기록인데, 바쇼 기행문 중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대표작이다. 2권 '산도화 흩날리는 삿갓은 누구인가'는 바쇼가 4년에 걸친 은둔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여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고, 3권 '보이는 것은 모두가 꽃이요'는 하이쿠에 모든 것을 건 바쇼의 작가 정신이 녹아 있다.

"오래된 연못이여/개구리 뛰어드는/물소리"라는 하이쿠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바쇼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이쿠 시인이다. 그의 하이쿠가 왜 가장 많이 읽히는지, 전국을 방랑했던 그의 여정과 창작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압축미와 서정성이 뛰어난 바쇼 하이쿠의 여백을 음미하는 과정도 흥미롭다.

바쇼가 쓴 주옥같은 하이쿠를 곁들였고, 당시 풍속을 자세히 묘사한 그림을 삽화로 써 읽기 편하다.

〈바다출판사·1권 1만2천800원, 2·3권 1만1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정관의 치-위대한 정치의 시대=중국 런민(人民)대학 국학원 교수인 멍셴스가 1천300여 년 동안 수많은 제왕들의 역할 모델이 됐던 당 태종이 정책 등을 실천하는 과정을 흥미로운 일화와 함께 소개했다.

〈에버리치홀딩스·1만8천원〉

이상우 자전소설-사랑으로=방송작가인 주경희가 가수 겸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약중인 이상우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 이씨가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누리게 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승훈이의 육아기를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현문미디어·9천800원〉

한국 CEO 대탐험 2=CEO 인터뷰 전문기자이자 CEO 관련 칼럼니스트인 손홍락이 대한민국의 대표 CEO들의 성공적인 삶을 탐색해 놓은 인물탐험기. 구자준, 신상훈 등 16인의 CEO들의 인생 역정과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북웨이브·2만9천원〉

밖에서 본 한국사=한반도 바깥에서 바라본 한국사 이야기. 김기협 전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3년간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머물면서 한국사를 중국의 '조선족 입장'에서 정리했다. 국수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세계사 흐름 속에서 본 한국사다.

〈돌베개·1만3천원〉

무삭제판 이다 플레이=2년 6개월 동안 이다 홈페이지(www.2daplay.net)를 통해 연재됐던 그림일기를 책으로 엮었다. 화가를 꿈꾸는 독특한 소녀 '이다'의 소소한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감정들이 각종 그림과 사진에 담겨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불안감에 시달리는 소년=미국 남부가 낳은 대표작가 카슨 매컬러스의 단편집. 상처받은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다룬 표제작을 비롯해 '편지' '예술과 청부업자 마호니 씨' 등 7편의 단편을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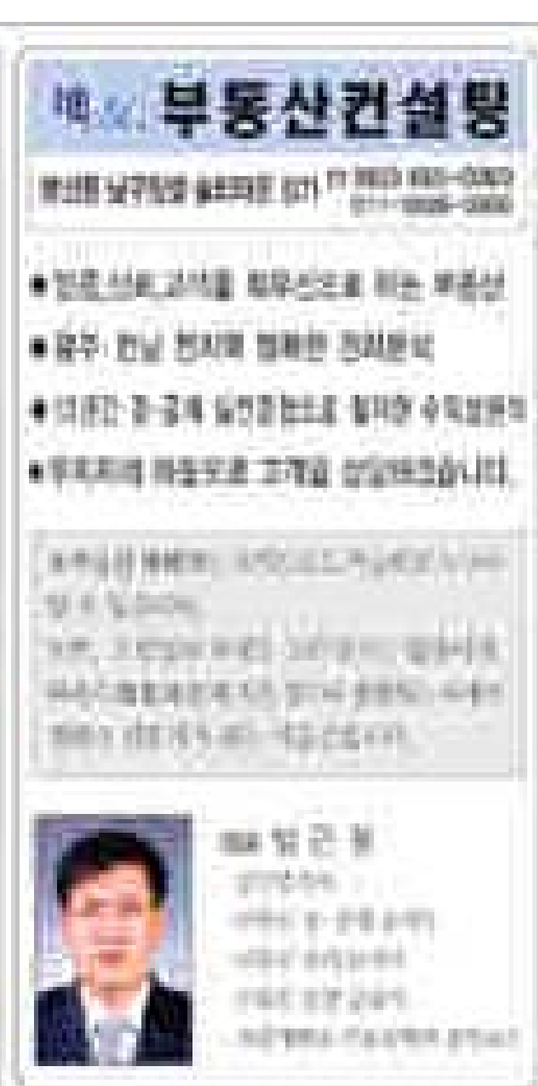
〈열림원·9천원〉

리더 김성근의 9회말 리더십=이데일리 스포츠 기자로 재직중인 정철우가 SK 와이번스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조명했다. '야구의 신'으로 불리며 40여년 가깝게 감독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그만의 리더십을 정리했다.

〈비전코리아·1만2천원〉

오늘의 사건사고= 영화 '오늘의 사건사고'(2006년 개봉작)의 원작소설. 에쿠니 가오리를 잇는 일본 차세대 여류작가 시바사키 토모카가 7명의 젊은이들에게 하루동안 생긴 일을 5명의 시선으로 그렸다. 일상에서 스쳐갈 수 있는 사소한 순간들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소담·9천500원〉

신화로 보는 세상=문화칼럼니스트인 박영수가 신화를 통해 일상을 바라봤다. 저자는 사랑, 우정, 정의, 행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신화를 통해 처세 등 인간관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학민사·9천500원〉